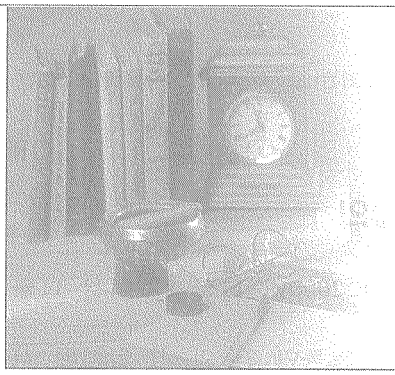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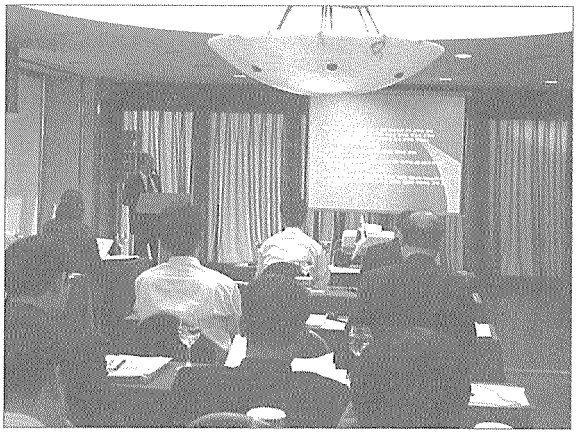


# [협회소식]

## ◆ 제4회 동북아 산업표준협력회의 열려..

###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표준협력,
### 아시아 파렛트시스템연맹 설립 적극협력 합의



제4회 동북아 산업표준협력회의(S-Dialogue)가 한·중·일 각국의 정부 및 민간의 산업표준관련기관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22일~24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2002년 한국 산업자원부가 선도적으로 제안, 제1회 서울, 제2회 북경, 제3회 동경을 거쳐 이번이 4회째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산업표준협력의 아이템 별로 구체화되면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물류분야에서 유일하게 채택된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사업에 있어서 그간 3차에 걸친 한·중·일 파렛트 전문가 회의에서 합의된 최종안이 이 회의에 보고되어 이번 동북아 산업표준 협력회의 공동합의문에 채택되었다.

공동합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관수송용 평파렛트 표준협력"(공동합의문 2.7)

3국의 표준정책 담당 기관과 표준협회는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의 표준개발 및 채택

에 협력한다. 이를 위해 3국의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아시아 파렛트시스템 연맹(APSF) 설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 드디어 최종안 합의

제3차 한·중·일 파렛트 표준화 전문가 회의가 지난 2005년 11월 9일에서 11월 12일까지 일본 후꾸오까에서 열렸다.

제1차(2004. 9 서울), 제2차(2005. 6 북경) 회의에서 그동안 3국의 기 합의된 사항을 포함하여 아시아 일관수송용 파렛트 규격(안) 및 아시아 파렛트시스템 연맹 규약(안)의 미합의 사항이 일관 타결됨으로써 아시아 파렛트 표준화사업은 본격적인 활동단계인 제 2라운드의 개막을 알렸다.

이 최종합의문에 따라 2006년 6월 아시아 파렛트시스템 연맹(APSF) 창립이 확정되었으며 아시아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의 규격을 3국 정부에서 승인하도록 건의문이 채택되었다. 또한 2005년 11월 14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동북아 산업표준협력회의에 3국 파렛트 표준화 전문가 회의의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여기에서 채택되어 공동합의문 2.7항에 명기되어 앞으로의 추진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 ◆ 2005년 유닛로드 시스템 보급 실태조사 보고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기술표준원이 시행한 2005년 물류표준인증부문 연구용역사업인 표준화관련 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2005년 유닛로드시스템 보급 실태조사"를 2005년 4월~12월까지 완료하고 최종보고서를 지난 2005년 12월 15일 제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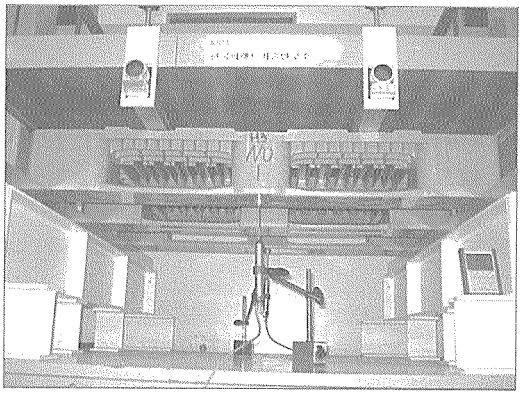
본 조사는 당 협회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파렛트의 생산 및 사용 실태조사"와는 별개의 조사로 유닛로드시스템 통칙에 따른 물류관련 시설?장비 및 기기 상호간의 정합성을 높일 수 있는 유닛로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기반의 실태조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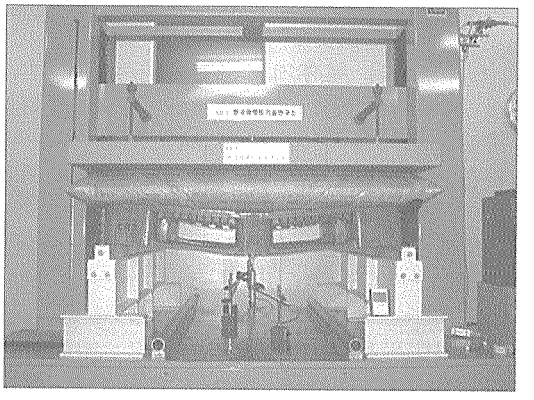
## ◆ 한국파렛트컨테이너기술연구소 ISO/TC51 Project(Pallet Test) 진행중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ISO/TC51 Project 및 표준화기술개발 사업으로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공동으로 파렛트에 대한 공동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는 파렛트 표준화와 ISO 8611(파렛트 시험방법 및 조건)규격의 개정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시험은 크게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공동 시험인 Project 1과 한국, 일본의 공동시험인 Project 4 로 , 각 Project는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부설 연구소인 한국파렛트컨테이너기술연구소(천안, 아산)에서 시험중이며 2006년 3월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파렛트의 재질 및 구조에 따른 파렛트의 휨량을 예측하기 위해 실시중인 본 시험은 ISO 8611-2, ISO 8611-3의 규격의 개정에 중요한 기본자료로 활용되며. ISO 규격의 부적합한 시험조건과 성능기준을 찾아 새롭게 개발하여, ISO/TC51 기술위원회의 2006년도 ISO/TS 8611-2, ISO/TS 8611-3 규격의 상위규격인 ISO DIS/FDIS로의 개정작업시 국내의 파렛트에 대한 시험조건과 성능요건이 ISO DIS/FDIS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험평가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 ◆ 건설교통부,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시행

물류기업들이 올 1월1월부터 시행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운송, 물류시설운영, 물류서비스의 3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제3자 물류(3PL: Third Party Logistics) 비중이 20% 이상 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다양성, 기업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점 7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선진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2005.1.27)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담은 『종합물류업자 인증 등에 관한 규칙(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공동부령)』과 『종합물류업자 인증

요령(건교부, 해수부, 산자부 공동 고시』각각 공포(2005.12.30), 고시(2006.1.2)했다.

종합물류기업인증제 시행방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적인 물류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종합물류기업'이란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및 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화주기업 등으로부터 물류업무를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 대행하는 물류전문기업 중에, 인증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인증을 받은 단일기업 또는 전략적 제휴기업군을 의미한다.

둘째, 전략적 제휴를 통한 참여도 가능하다. 하나의 물류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인증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심사하여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세부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단독기업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물류시설, 물류시설 운영업에 속한 사업 중 최소 하나씩 영위하여 최소 3개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영위해야 하며 제3자 물류 매출비중이 물류매출액 중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전략적 제휴기업군일 경우에는 영위업종과 제3자 물류매출비중 기준 이외에 5개 이내의 기업, 공동브랜드 사용,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의 공동이용,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 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전략적 제휴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셋째, 다양성, 기업규모, 발전가능성의 3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한다.

평가항목을 다양성, 기업규모, 발전가능성으로 구분하는 한편,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양한 기업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 중심형은 기업 규모보다 발전가능성에 중점 두는 등 자산형(운송중심, 시설중심)과 비자산형(서비스 중심)별로 달리 적용한다.

넷째, 평가결과 총점이 만점의 70% 이상 득점시에 인증한다. 운송 중심, 시설 중심, 서비스 중심형별로 각각 평가하여 어느 하나유형이라도 70% 이상 득점하면 인증을 받게 된다.

다섯째, 별도의 인증기관에서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설치하게 되는 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이후 종합물류기업 인증마크를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 홈페이지(http://cilc.koti.re.kr, 031-910-3114)를 개설(2006.1.2)하였으며 인증신청 희망기업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체평가 등 인증신청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여섯째, 전략적 제휴지원 센터를 통한 제휴를 알선한다. 국제물류지원단(http://kilc.kita.net, 02-6000-5451)에 전략적 제휴지원센터를 설치해 종합물류기업 인증희망 기업의 취득 가능점수를 분석한 후 제휴알선, 법적 제도적 규제사항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 기술표준원, KS규격 무료열람 확대

포털사이트에서도 KS규격 열람이 가능
- 네이버를 통해 KS규격 무료열람서비스 제공 -

○ 2006년 1월부터 민간 포털사이트에서도 국가표준(KS)규격 전문에 대한 무료열람이 가능해 진다. 또한 최신 제정, 개정되는 KS 목록 정보도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된다.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김혜원)은 '06. 1. 2(월)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는 NHN㈜와 '국가표준자료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네이버를 통하여 21,000여종의 KS규격 정보 검색 및 무료열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국가표준(KS)은 산업계를 중심으로 주로 전문 정보로만 활용되어 왔으나,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포털사이트에서 KS 규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되어, KS를 잘 모르던 일반 국민들도 표준을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국민생활 속에서 국가표준(공공 서비스 및 소비자 보호, 노약자, 장애인 관련 규격 등)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공공서비스 관련 규격 : 공공안내 그림표지(KS A 0901) 등
제품안전 관련 규격 : 제품안전 그림표지(KS A 0902) 등
고령자 및 장애인 관련 규격 : 전동 의자차(휠체어)(KS P 6114) 등

○ 기술표준원에서는 국가표준(KS)의 보급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03. 6월부터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standard.go.kr)를 통해 KS규격 무료열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그 결과 매년 1.5~2배의 열람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05.11월말 현재 945천건, 83.6% 증가) 산업계의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실제로 규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다.

○ 금번 NHN㈜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규격 정보를 검색(단어, 규격번호 등)하기만 하면 누구나 KS규격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국가표준의 보급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민간 포털사이트와 표준화 유관기관 등 KS 무료열람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모든 사이트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